**생활과 윤리 + 윤리와 사상 복합정리 (중간본)**

ver. 20200810 KST09:58, edited by @metamonmongu.\_.u

All rights reserved.

불교

- 몸의 본체인 '혜'와 몸의 작용인 '정'을 따라야 한다. (X)

=> 몸의 본체는 '정'이고, 몸의 작용이 '혜'이다.

- 쾌락과 고통의 양 극단을 넘어서는 올바른 수행을 행해야 한다. (O)

- 모든 현상은 인간 스스로 행한 업의 결과이므로 도덕적 행동인 선업을 행해야 한다. (O)

- 부모에 대한 효는 부모의 공덕에 따른 것이다. -2020 김종익 세미파이널 (O)

- 혜능은 보살의 힘과 염불에 의존하여 해탈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X)

=> 비판했다.

- 혜능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자성을 직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O)

자성은 긍정, 부정 두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주의.

성리학

조선 성리학자 이황

- 칠정의 선악은 이의 주재능력 발휘에 달려있다고 본다. (O)

=> 칠정은 기발이승이므로 이의 미발상태이다. 이가 주재하면 가선가악한 칠정이 선할 수 있다.

- 칠정은 항상 악하다. (X)

=> '가'선'가'악이다.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다. 100% 선 or 악 아니다.

데이비드 흄 (경험주의, 공리주의계열)

- 도덕적 선악은 그 행위를 한 사람의 품성 자체에 있다. (X)

=> 도덕적 선악 판단의 '기준' 직관인 (보편적인) 것이지 선악 자체가 품성에 있는 것은 아님.

- 도덕적 선악은 객관적 실체이다. (X)

- 도덕적 선악은 사회적 '유용성', 혹은 자연적 경향성에 의한 승인과 부인의 감정에 기초한다. (O)

- 도덕적 선악의 기준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있다 (X) -> 인간의 감정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보편적 감정'에 기초함. 이 보편적 감정이 이성적 부분은 아니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라는 것.

- 흄은 도덕적 감정의 근원을 유용성이라고 보았다. (O) -> 야박한 유용성이 아님.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은 '사회적' 유용성의 설득력을 높여주었고 공리주의에 영향을 주었음.

- 유용성에서 비롯된 -> 도덕적 감정 -> 도덕적 행동 -> 시인(승인)의 감정. for 우리 사회의 이익!

- 유용성이 도덕감정의 원천이다. (O)

- 도덕적 감정을 통해 악덕과 덕을 구별할 수 있다 (O) : 이는 보편적임.

- 도덕적 감정 = 공감 = 보편적

- '공감' 이라는 '자연적 성향'에 따른 사회적 유용성.

- 덕과 악덕의 차이는 관념들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X)

=> 우리의 자연스러운 보편적 도덕감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이지, 관념들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이성적 사유는 인간의 도덕적 삶에 기여할 수 있다. (O)

(도덕적 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할 때나 상황 등을 파악할 때 이성이 기여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 vs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 트라시마코스)

소크라테스

"나는 자연 철학자를 경멸할 생각이 없다. 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육체나 재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그들의 영혼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라 (행복한 삶을 위해 영혼을 돌봐야 함 - 무지의 자각)고 설득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훌륭한 제화공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구두가 무엇이며, 그것이 무엇에 쓰이는지를 알아야 한다. (주지주의) -2016.7월

- 소크라테스는 행위의 옳고 그름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X) -> 보편/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므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선악 판단은 옳지 않음.

- 정의는 강한 자가 다스림을 받는 자 (피치자)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다. -2019.7월 (O) -> 소크라테스=윤리적 보편주의

- 덕이 있는 삶은 삶을 선의 탁월성 (ἀρετή, 도덕적 미덕)이 실현된 상태라고 본다. (O)

- 지덕복 합일체. 덕은 곧 행복이다. -> 제시문 보고 아리스토텔레스와 혼동하지 말 것

-

소피스트

- 정의는 강한자의 이익이다. 승리를 거둔 강자의 명령이 사회의 법이 되고 정의가 된다. 절대적 진리란 존재할 수 없다 (회의주의)-> 윤리적(=도덕적) 상대주의 = 소피스트 (Man is the measure of all things, 프로타고라스)

-

=> 윤리적 상대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개념 혼동하지 말 것!

**- 문화 상대주의**(文化相對主義)의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진리](https://ko.wikipedia.org/wiki/%EC%A7%84%EB%A6%AC)는 있을 수 없으며 어떤 입장도 그 나름대로 옳다고 주장하는 입장이고 각 집단의 문화의 형성과 생성 배경을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이다. 즉, 어떤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의 독특한 환경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각각의 문화는 고유한 존재이유 및

가치를 지니므로 특정 기준으로 문화의 우열을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필요성에 의한다.

**- 윤리 상대주의** : 현대 덕 윤리 철학자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 (공동체주의)와 관련있는 부분이다.

도덕적 옳음과 그름의 기준은 사회에 따라 다양하며, 보편적 도덕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태도이다. 이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기준에 위배되는 행위 (식인, 명예 살인등) 마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근대 윤리 : 현대 덕 윤리 = 자유주의, 보편주의 : 공동체주의, 맥락적, 특수주의

플라톤

"태양은 보이는 것들에게 보임의 힘을 주고 그것들을 성장할 수 있게 한다. 마찬가지로 '좋음'은 인식되는 것들에게 인식됨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들을 존재할 수 있게 한다. -2017.수능

=> 태양의 비유를 통해 선의 이데아를 설명함.

"인간이 올바르게 되는 것은 나라가 올바르게 되는 방식과 같다." -2017.수능

=> 이상적 인간과 이상적 국가를 설명하는 방식이 동일함.

"국가는 개인의 영혼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4.10

=> 위와 같음.

- 플라톤은 왜곡된 현상에서 벗어나 이성을 바탕으로 참된 진리의 세계가 존재함을 피력했다. 꼭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 철학자의 과제는 사람들을 가상의 세계와 비유의 세계에서 해방시켜, 참된 존재로 인도해 주는 것이다.

- **모든** 사물은 각각의 이데아가 있다. **이데아 간에는 위계가 존재**한다. 이데아 간 클라스 차이 존재한다는 것.

- 정의의 덕을 갖춘 사람은 절대 불행해질 수 없다. (O) -2015.수능

- 지혜 / 용기 / 절제의 조화를 이루면 절대 불행할 수 없다. (O) -2019.10

아리스토텔레스

- 목적론적 세계관

-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최고선 = 행복. 이는 현세에서 실현 가능 (≠플라톤. 아테네학당 그림 생각할 것)

"행복 (목적론적 세계관) 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덕에는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 (품성적 덕)이 있다. 지적인 덕은 교육에 의해 생기고 도덕적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긴다. "

"선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현실주의, 실재주의적 관점).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어떤 선을 성취하기 **위해 존재한다.**" -2015.수능

- 지적인 덕 :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 (세계에 대한 관조, 실천적 지혜)

- 품성적 덕 : 영혼의 감정이나 욕구 부분과 관련된 덕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행위, 용기 및 절제 등)

- 진리에 대한 관조 : 신이나 자연과 같이 고귀한 대상들을 관조.

-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최고선으로 보았다고 해서 경험주의나 감정주의로 생각하면 안된다. 이성 중시했다. - 목적론적 세계관 : 모든 인간은 행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한다.

- 모든 생명체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의한 자연스러운 정치공동체이며, 인간은 국가를 떠나 행복할 수 없다 (≠사회계약론)

- 모든 덕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습관화하여 형성된다. (X) - 2016.9, 정답률 49%

=> 습관화하여 형성된 덕은 품성적 덕이다. 지성적 덕은 습관화가 아닌 교육과 탐구를 통해 형성된다.

플라톤 ∩ 아리스토텔레스

- 철학자만이 성취할 수 있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다. (O) - 2019.10

=>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모두 '철학적 지혜'를 탁월하게 발휘하는 상태가 최고의 행복이라고 본다.

플라톤 ≠ 아리스토텔레스

이데아는 현실 세계에 없다 vs 있다.

"이데아는 현상을 초월한 실체가 아니다. 사실상 개체 속에 들어있는 공통점을 추출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데아는 현상 속에 들어있다." -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 플라톤 ∩ 아리스토텔레스

- 이성적 탁월함이 훌륭한 삶의 조건이다.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삶을 훌륭한 삶으로 본다.

- 선에 관한 지식은 유덕한 행위의 필수적 조건이다. - 2014.9 => 모두 도덕적 삶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선에 대한 참된 지혜에 이를 것을 강조함.

스토아학파 (범신론, 신 = 자연 = 이성 ≠ 초월적 실체)

- 스토아학파는 인간이 자연을 초월한 이성의 힘에 순응해야 한다고 본다 - 2017.수능 (X)

=> 자연 = 이성이다. 초월하긴 뭘 초월해

- 세계 시민주의적 입장이다. 우리 모두는 '이성'을 갖춘 존재라는 점에선 모두가 동등하다.

- 세계 시민주의에서 비롯된 인류애 => 로마의 만민법에 영향

- 정념으로부터의 자유 추구 => 스피노자에 영향. 스피노자는 한술 더 떠서 인간의 자유의지 부정함.

- 이성에 부합하는 삶과 의무 강조 => 칸트에 영향

- 자연법사상 => 중세의 아퀴나스, 근대의 자연법 사상가들에게 영향

에피쿠로스

"이성적이고 고상하게 살지 않으면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없다. 또한 쾌락 속에 살지 않고서는 이성적이고 고상하게 살 수 없다. 모든 욕구와 회피의 근거를 파악하고 영혼의 동요를 방지하는 명료한 사고만이 쾌락적 삶을 만들어 준다." - 2017.수능

=> 에피쿠로스학파는 '이성적 제어'를 통해 '최소한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며, '고통이 없는' 상태에선 더 이상의 쾌락추구가 필요하지 않다. 최고선은 쾌락이다. 쾌락 is the best

- 개인 간의 정의가 필요한 것은 최고선인 쾌락을 얻기 위함이다. (O) -2019.10

- 개인 간의 정의는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소인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O)

(≠플라톤. 플라톤은 정의가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데아 - 정의론 생각)

토머스 아퀴나스 (중세, 스콜라철학, 목적론적 세계관)

-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도덕적 덕 + 종교적 덕 둘 다 필요하다.

- 자연적 성향은 동물과 인간 모두 존재한다. (O) => 목적론적 자연관 ex) 생존, 번식의 욕구

- 신앙과 이성은 모두 신이 준 것으로, 신에게 귀결된다. (O)

- 신과 자연과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다. (O)

- 인간이 제정한 자연법은 이성으로 파악 가능한 것이다. - 2017.9 (X)

=> 자연법은 인간이 '제정' 한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파악' 가능한 것이다.

- 자연법의 제1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이다. - 2017.9 (O)

영원법 (불변) > 자연법 (불변) > 실정법 (가변)

-> 불변하는 영원법과 가변적인 실정법을 자연법이 매개한다. - 2017.9 (O)

- 실정법의 제정 근거는 영원법이다. (X)

=> 이성으로 파악 가능한 자연법을 근거로 실정법을 제정하며, 자연법사상에 위배되는 실정법은 개정될 수 있다.

- 믿기 위해 알아야 한다.

성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히포넨시스

- 플라톤사상 영향받음.

- 이데아는 신의 정신 안에 있다.

- 신은 종교적 체험을 통해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이다. 알기 위해 믿어야 한다.

토머스 아퀴나스 ∩ 성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히포넨시스

- 완전한 행복은 내세에서 최고의 선인 신과 하나 되는 것이다.

- 인간의 현세적 삶은 영원한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예비적 단계이다. -고2.2019.11.

=> 스피노자는 현세에서 완벽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지 qna 할 것.

바뤼흐 스피노자 (근대 서양 사상가)

- 범신론

- 인간과 사물은 무한한 실체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O) -2018. 9

-> 이를 뜯어보자. 인간과 사물은, '무한한 실체'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인간과 사물이 무한한 실체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실체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양태'라는 것이다.

- 인간과 사물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실체다. (X)

- 이성을 통해서 정념 발생의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세요. (O)

르네 데카르트

- 방법론적 회의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수단이다. (O)

임마누엘 칸트 - 의무론

- 개인의 준칙이 격률이 되려면 보편화 가능해야만 한다. (X)

준칙=격률=주관적. 동어반복이다. -2020. 7월 이투스 전국연합

- 실천 이성이 행복에 대한 모든 요구의 포기를 명하지는 않는다. (O) -2020.7월 이투스

=> 의무와 행복은 양립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의무와 행복이 대립할 때엔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의무만을 생각해야 한다.

- 자연적 경향성을 따르는 것도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있다. (X)

=> 칸트가 생각하는 자연적 경향성은 이성이 아닌 욕구다. 이는 정약용과의 공통점.

임마누엘 칸트 ∩ 정약용

- 인간과 동물은 모두 자연법칙에 의한 경향성에 따르는 행동을 한다. (O)

(칸트 - 자연법칙에 따른 경향성적 행위로서 비이성적 행동 / 정약용 - 형구의 기호)

- 인간과 동물은 자연법칙에 따르는 행동을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칸트 - 의무의식, 선의지 / 정약용 - 영지의 기호)

임마누엘 칸트 ∩ 체사레 베카리아

- 인간존엄성의 측면에서 사형제를 검토하였다.

(칸트 : 사형제는 인간존엄성 실현, 베카리아 : 사형제는 인간존엄성 무시)

임마누엘 칸트 - 영구 평화론

-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로 간주된다. -2021.6 (X)

=> 국제기구, 외교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행위자가 될 수 있다.

현실주의 - 한스 요아힘 모르겐사우

- 전쟁 수행의 최종 목표와 외교 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익이다. -2021.6 (O) - 당시 미국의 정책노선에 반영됨

토머스 호브스

- 시민들은 군주에게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이 있다. (X)

=> 주권 완전 양도설이므로 저항권 인정하지 않으나, 인민보호능력이 없는 절대군주는 '권위'를 상실한다.

즉, 주권자가 사회계약의 목적인 '생존권 보장'을 실현하지 못하면 파괴 가능하다. -> 저항권 애매하니 찾아볼 것

존 로크

- 존 로크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였다. (X)

=> 로크가 권력의 분립 (입법권과 행정권)을 주장하긴 하였으나 입헌군주제를 부정한 것은 아님.

입헌군주제와 절대군주제를 헷갈리지 말자.

- 한 개인이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자신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O)

장-자크 루소

- 주권은 양도되거나 대표될 수 없다. (O)

=> 루소는 주권양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사형제는 인정했다.

카를 하인리히 마르크스

- 사회주의 혁명은 필연적으로 도래한다.

- 폭력혁명을 주장하였다.

- 노동자 (프롤레타리아)와 자본가 (부르주아)와의 연대를 강조하였다. (X)

- 인간은 본질적으로 노동하는 존재이다.

- МАНУФАКТУРА : 자본주의와 분업의 상징.

민주사회주의 (프랑크푸르트혁명)

- 민주사회주의는 노력에 따른 분배를 인정한다. (O)

피터 싱어 - 존 롤스 : 해외원조

- 원조의 주체

피터 싱어 : 우리 모두 원조의 주체 O. 정부와 국제기구 역시 주체가 될 수 있음. 세계시민으로서 개인의 의무적 측면 강조함.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너라도 나서라.

존 롤스 : well - ordered society 및 국가/사회 중심. 국제주의적 입장으로서 국가 간의 경계를 중시함 (싱어가 비판하는 지점).

원조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 (O)

과거의 잘못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 (X)

전 지구적 분배 정의 실현, 자원 배분의 우연성 조정, 국가 간 평등 실현, 차등의 원칙 실현 (X)

정의론

마이클 레이번 왈처

- 정의의 원칙이 개인의 정체성을 배제시킨 상황에서 도출되어서는 안된다.

=> 존 롤스의 ignorance of veil 비판.

시민불복종

헨리 데이비드 소로

-인두세를 내지 않아 감옥에 가게 된 적이 있다.

"만약 불의가 정부라는 기계의 필수 불가결한 마찰의 일부분이라면 그냥 내버려두라. 모르긴 하지만 그 기계는 결국에는 닳아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불의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분명히 말하는데, 그 법을 어기라. 당신의 생명으로 하여금 그 기계를 멈추는 역마찰이 되도록 하라.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극력 비난하는 해약에게 나 자신을 빌려주는 일은 어쨌든 간에 없도록 하는 것이다."

존 롤스

- 차등의 원칙에 대한 부정의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제2원칙 중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위반을 제외한 차등의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시민 불복종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준도 애매할 뿐더러,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뉘앙스.

-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O)

=> 정의 원칙이 대상인지 정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 대상인지 구분할 것.

-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부정의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X)

=> 맞다. 단, 심각하고 현저한 수준이어야 한다.

-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심각하고 현저한 위반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X)

=> 맞다고.

전쟁에 대한 입장

- 모든 전쟁 반대 :

- 거의 모든 전쟁 반대, 일부 전쟁 인정 : 임마누엘 칸트(방어전), 존 롤스 (정의전쟁론), 묵자(방어전)

- 전쟁 인정 : 한스 요아힘 모르겐사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마이클 레이번 왈처 (정의전쟁론), 아퀴나스

정의전쟁론 - 마이클 레이번 왈처

- 전쟁은 어떠한 도덕적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 전쟁의 정당한 명분을 사회 전체의 효용에서 찾아야 한다.(×)

- 전쟁의 정당한 명분보다 전쟁 수행의 규범을 중시해야 한다.(×)

- 전쟁은 국가의 주권 사항이므로 도덕적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전쟁 개시의 정당한 명분만으로 그 전쟁이 정의롭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의전쟁론 관련 선지 정오판단

1. 왈처는 부정의하게 전쟁을 시작했다면 전쟁 수행 과정은 정의로울 수 없다고 본다. (×)

2. 왈처는 전쟁 개시의 정의가 전쟁 수행 과정의 정의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다. (○  )

3. 아퀴나스는 전쟁이 정의로우려면 오직 합법적 권위를 지닌 군주에 의해 전쟁이 선포되고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4. 왈처는 자국의 합당한 이익에 대립하는 합리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쟁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 (○)

  왈처는 합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의로운 전쟁이 아니라고 보았다.

5. 왈처는 전쟁 개시 이전이라도 가능하다면 전쟁이 아닌 다른 평화적 수단을 동원하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

6. 왈처는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능력을 국가가 가지지 못할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7. 왈처는 부당한 침략에 대한 방어 전쟁을 정당하다고 본다. (○)

8. 왈처는 모든 전쟁을 부정하는 평화주의와 모든 전쟁을 정당화하는 현실주의 모두를 반대한다. (○)

9. 왈처는 가벼운 인권 침해는 전쟁이 아닌 자체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함을 주장했다.  (○)

10. 왈처는 어떤 나라가 비민주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경우, 그 나라에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 (×)

11. 전쟁은 국가의 주권 사항이므로 도덕적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2. 전쟁개시의 정당한 명분만으로 그 전쟁이 정의롭다고 단정할 수 없다. (○)

13. 개전에 있어서의 정당성은 전쟁 수행과정과 결과의 정당성을 보장한다. (×)

14. 전쟁이 부당하게 개시되더라도 정당하게 종식될 수 있다.  (○)

15. 왈처는 개인이나 국가가 인도적 개입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16. 인권 침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이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17. 무력 개입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당사국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18. 전쟁의 정당성 논의는 전쟁이 끝남으로써 종식된다. (×)

19. 왈처는 무력 개입을 할 경우 준수해야 할 도덕적 의무는 없다고 본다.  (×)

20.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에 대한 무력 개입은 전당하지 않다.(○)

21. 적법한 통치자에 의해 선포된다면 모든 전쟁이 정당한가? (×)

22. 타국 내의 부정의(不正義)가 심할 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 (○)

23. 인권침해만으로는 정당한 전쟁의 조건이 완비되지 않는다.(○)

24. 전쟁은 도덕적 비판의 대상일 분이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25. 전쟁은 국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

26. 인권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국제 정의를 도모할 수 있는가.(○)

27. 생명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지역은 무력 개입이 필요한가​(○)

28. 모겐소는 국제 사회에서 합리적 이해와 가치의 공유는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9. 모겐소는 국가보다 상위의 권력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